







모두다 사회주의애국공로자들처럼 살며 투쟁하자!

《나를 따라 앞으로!》만을 아는 남흥의 작전가, 실천가

남흥 청년 화학 연합 기업소 부지배인 겸 자재상사 사장 강영철 동무

내 나라를 하루빨리 부강민영하는 강국으로 밀어세우기 위한 오늘이...

생산과 운영에서 원료나 자재 부족으로 애매우는 적은 원반도...

단위들에서 수백까지의 원료, 자재를 실어넣어야 했다. 그중에서 한가지라도 부족하면 벌써...

영철동무는 말했다. 《그러나 조건만 보강해 주면 해볼 수 있다는 겁니까?》

즉시 해당 지역의 일꾼들과 편제하여 도로를 복구하기 위한 사업을 조직하는 것과 함께...

있는 지식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맹렬하다 외지에 나가 있는...

매 가서 어머니당을 만들어 손간도 달아서 없이 일장서 달려온...

노동자 출신의 일꾼

《정말 그렇게도 좋은 점이 없나 말입니까?》

61년생, 이제 그것을 잊을 수 없으리. 일찍이 나라의 시체지구에 현대적인 화학공업기지를 꾸리는데...

남흥사람들은 강영철동무를 보고 다채다능한 사람이라고 한다. 마이크를 쥐고 무대에 나선면...

이것은 대성기업 일꾼들이 한 번 마우스를 쥘만 볼 때까지 풀리지 않는 숙제였다.

이것이 바로 남흥의 지휘관들이 추구하는 목표였다.

이것이 바로 남흥의 지휘관들이 추구하는 목표였다.

이것이 바로 남흥의 지휘관들이 추구하는 목표였다.



강영철 동무 (왼쪽에서 셋번째)

한시도 늦출수 없고 한순간도 소홀히 할수 없는 것이 반계계급교양이다

년로자들의 운명을 통해 본 판이한 두 현실

누구나 서로 돕고 이룸이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고 사는...

《선, 나같은 늙은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노년들의 생활은 사형집행 유예기간이나 다름없다.》

《일본의 사회환경은 로인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안되는 형편이다.》

《노년들의 생활은 사형집행 유예기간이나 다름없다.》

《노년들의 생활은 사형집행 유예기간이나 다름없다.》

《노년들의 생활은 사형집행 유예기간이나 다름없다.》

《노년들의 생활은 사형집행 유예기간이나 다름없다.》

평퍼물에서 리원한

이동철장임을 통해 농업근로자들의 가슴속에 루틴한 계급의식을 깊이 심어주고있다.



이동철장임을 통해 농업근로자들의 가슴속에 루틴한 계급의식을 깊이 심어주고있다.

김주군계급교양관에서 - 본사기자 김진영 찍음



